

# 성장하는 교당을 진단한다

## 발표 내용

\* 진행 순서 / 2

- ◇ 교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교화성장(양성원 교무) / 3
- ◇ 다양한 교화방법을 통한 교화성장(김홍선 교무) / 4
- ◇ 교당조직의 전략적 운영을 통한 성장교당연구(나상호 교무) / 9
- ◆ 교화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한창민 교무) / 21

일시 : 원기86년 6월 20일 (수) 13:30

장소 : 중앙총부 법은관 2층 회의실

교 화 연 구 소

# 진행순서

1. 개식 사회 : 장경도교무
2. 입장
3. 설명기도
4. 범어봉독
5. 격려사

\*진행안내 : 연구발표 3명이 마친 후, 15분 휴식

## ◆연구발표

제1부 - 20분 발표/ 10분 질문

- ◇ 교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교화성장 - 양성원 교무(광안교당)
- ◇ 다양한 교화방법을 통한 교화성장 - 김홍선 교무(성산교당)
- ◇ 교당조직의 전략적 운영을 통한 성장교당연구 - 나상호 교무(교화훈련부)

제2부 - 30분 발표 / 10분 질문

- ◇ 교화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 한창민 교무(원광대)

★ 종합질의 및 토의 / 20분

6. 종합정리의 말..... 교화연구소장(김일상교무)
7. 폐회

## 효율적인 교도 관리를 통한 교화

양성원 교무(광안교당)

보은하는 마음으로 살자.

교당 교화를 한지 18년 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이 자리에 서게 됨이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한번 교당에 들어가면 교도와 관련된 일 이외는 밖에 나오지 않기에 사람들은 나에게 우렁각시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교당을 비워 중앙총부에 계시는 어른님들의 머리를 뜨겁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수도원에 보은해야 할 어른이 계시기에 그분을 찾아 뵈온지가 오래 되었고, 마음을 중앙으로 향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라 대문을 나섰습니다.

### 1. 함께 하는 교화

주제가 효율적인 교도 관리를 통한 교화인데 이를 **교도와 함께 하는 교화**라고 이름을 붙여 본다. 교화를 시작할 때 ‘교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낸 것인가’를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화를 출발하여 인연이 되었던 소중한 몇 분을 소개한다..

#### 함께한 소중한 인연들

첫 인연으로 경산 이어경 술산교당 교도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50년 동안 피우시던 담배를 끊으시며 신심을 받치며 교화에 도움을 주셨다.

제가 29살 때 술산교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도회장이 70세의 고령이었는데 상당한 학식과 지방의 유지로서 지내셨다. 일제시대 때 농림학교에 들어갈 때, 입학생이 50명이면 이 중에 40명이 일본인이고 나머지 10명만이 한국인을 뽑았다.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를 들어가서 그 지역에 유지로 오래 동안 지내왔었다. 하루는 이분이 오셔서 29세 된 젊은 나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교무님, 저는 교도회장 자격이 없습니다. 보통급 10계문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합니다.”

“회장님,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담배하나 끊지 못한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나머지 29개를 지키고, 담배는 교도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피우세요.”

그 다음날 회장님은 담배를 끊어 버렸다. ‘과거에 몇 번이나 끊었다 피웠는데 젊은 우리 교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이를 못 끊겠습니까?’ 하며 주변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군수나 교육장이 인사를 하러 오면 다시 돌려 보낸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선생님이 계시니 그곳을 먼저 다녀오시게. 그러면 인사를 받겠네.’ 하시며 꼭 나에게 보낸다.

그 다음 소중한 인연으로 가락교당 교도회장님이신 천산 송대성님이다. 이 분은 늘 술선수범을 보이시고 교무님 전공과목인 삼학팔조 사은 사요를 배우러 왔다고 교화에 자신감을 주셨다.

이 분은 키가 185cm 몸무게가 100kg 쯤 되어 보이는 큰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다 학식도 풍부하고 직책도 대단하여 설교하는데 부담이 되었다. 한번은 회장님께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회장님이 앉아 계시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무님의 삼학팔조 사은사요를 들으러 왔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또 한번은 우리 교당도 다른 교무님을 초대해서 법회를 보자고 제의했었습니다. 이때도 회장님은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문도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교무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겠습니까. 저희는 교무님의 삼학팔조 사은사요면 충분합니다.’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교화는 회장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다. 그 후 회장님은 회사에서 대중경을 쓰시고 직원들에게도 권하였다. 그리고 가끔 직원들에게 ‘나는 실시품을 쓰는데 자네들은 지금 어디 쓰는가?’라고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도 꼼짝없이 교전공부를 하게 만들었다.

또 한번은 ‘교무님 교당에 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을 시켜 주세요. 저희들은 직장에는 직원들이 있지만 교당에는 저희들이 직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술선해야 다른 교도들도 따라 합니다.’라고 하여 교도들의 모범을 보였다.

‘회장님이 다리가 불편하니 교당에 의자를 놓자.’는 교도들의 여론이 있었다. 회장님은 극구 반대하시며 ‘나는 방석이 좋습니다. 매일 의자에 앉았다가 일주일에 한번씩 교당에 오는데 교당에서까지 의자에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방석에 앉으면 누가 오는지 또 누가 부르면 몸만 살짝 돌리면 다 알 수 있지만 의자에 앉으면 몸 돌리기가 오히려 불편합니다.’라는 것이다.

그 후 김해 교당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는 늘 하루일과를 보고하면서 8년 간을 무결석하신 희산 김송안 교도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분의 특징은 인사를 안 하는 것이다. 평소 늘 인사를 받고만 살아서 인사하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한번을 이렇게 주문을 했다.

“회장님은 우리 교당에서 발끝에서 머리털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에 깃스만 빼면 좋겠습니다.”

“인사 잘 하는 것은 날 따라 올 사람이 없지.”

라고 장담하면서도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 누가 인사를 하면 ‘응, 왔어.’라고 하며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다.

이런 회장님이 변화가 되어 8년 동안 무결석을 하면서 교도를 쟁겼다. 한 때는 ‘교무님께서 이제까지 교당을 거쳐오면서 어떤 회장이 제일 잘 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다. 아마도 본인을 지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술산교도 회장님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는 반감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우리 교회는 안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교화를 해야 하는데 회장님께서 한번도 새로운 교도를 교당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그것 문제없어.”라고 하였다.

그 후 행사때마다 나를 데리고 갔다. 교무님의 자리가 없으면 당무자에게 ‘이 자리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앉아야 해.’ 하면서 당신의 자리를 비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나 다른 기관장 옆에 내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옆에 당신이 앉았다.

이렇게 해서 교당마다 교도와 함께하는 교화가 이루어졌다.

## 2. 찾아가는 방문교화(순교교화)에서 찾아오는 교당으로

처음 부임해서는 의무적으로 순교 방문하였고, 친숙한 뒤에는 언제든지 교당으로 오시도록 자리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았다.

농촌의 경우, 농번기는 논밭으로 농한기는 가정으로 기도독경을 다녔다. 한번은 날씨가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논으로 순교를 갔다. 그곳에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약주를 한 병 사가지고 갔다. 회장님은 ‘교무님께서 어떻게 농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더운 날에는 약주 한 잔이며 갈증도 해결되고 힘도 납니다.’하면 매우 좋아 했다.

도시에서는 주로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 교도들과 함께 할 수 기회를 만든다. 특히 전화를 받을 때에는 늘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운 목소리로 맞이한다. 늘 준비된 마음으로 이들을 기다림으로 해서 교도들이 교당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3. 현장에 맞도록 맞춤교화(심법교화)를

교화는 고무줄과 같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렇게 고무줄을 가져왔는데 고무줄이란 당기면 늘어나지만 놓으면 다시 제 자리로 간다. 조금만 관심을 놓으면 교도들은

금방 마음을 놓아 버린다. 교무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무줄처럼 당기고 묶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고무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모도 만들고 네모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교화는 일정한 틀이 없지만 나에게 맞추어 할 수는 없다. 대종사님의 교화법에 맞추어 진리적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자비 인정교화를 하면서 교리수행으로 이들의 마음을 당긴다. 그리고 진리에 서원을 세울 수 있도록 심법교화를 한다. 함께 살 때는 세정 알아주며 멋지게 교화하고, 떠날 때는 당당하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난다.

시간이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교도들과 함께 하며 일구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화는 행정적 조직적으로 해야 하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온몸으로 함께 진리에 서원을 세우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다양한 교화방법을 통한 교화 성장 연구

김홍선 교무(성산교당)

◎ 우리는 사업가: 중생을 제도하는 교화·교육·자선 사업가.

북광주 교당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화를 잘 할 것인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 교당을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족품 15장의 말씀이 가슴이 다가 왔습니다.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사업목표는 교화·교육·자선의 세 가지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으리라.」

교당의 교화방향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교당 교화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교당교화의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마다 목표와 사업 실현을 위한 인원구성,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설정했습니다.

### 1. 교화 사업을 위한 방안

1) 일원가정 만들기- 교도들의 인적상황을 살펴본 후 일원가정인가 아닌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일원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연구한다.

2) 전교도 가정 일원상 봉안- 가는 곳마다 먼저 교도들의 가정에 일원상이 봉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가장 먼저 실행한다. 교도들도 일원상을 봉안하고 난 후에는 마음이 스스로 쉼겨지고 든든하다고 한다. 제가 성산교당에 온 후 18가정이 일원상 봉안을 했다.

3) 전교도 교화단체를 통한 구체적인 교화 - 교화훈련부에서 교화단 책자를 보내오면 이곳 현실에 맞게 교화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년 간 계획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구성한다.

4) 매 예회마다 설교안을 작성 - 북광주에서는 1장씩 돌렸으나 성산에서는 두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장은 본인이 보고 또 한 장은 함께 하고 싶은 가까운 인연에게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교무님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5) 교도가정의 애경사에 접근 - 생일, 결혼기념일, 애사, 경사, 진급의 때를 기다려 정성스럽게 꽃다발과 케이크 등을 전해 주는데 작은 것이라도 감동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한다.

6) ‘참으로 내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한 화두 연마의 생활 유도 - 세상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최선을 다 했느냐 반문하며 마음을 다진다.

7) 교도마다 역할 분담 - 교도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자기가 아니면 누가 하지 못한다는 책임을 부여하여 교당에 주인을 만들어가게 한다. 역할 분담은 새 교도 챙기기, 성가 지도, 피아노 반주, 방석, 세탁, 법당 청소, 잡초 제거등 등이다.

8) 지역민들을 위한 교당 홈페이지를 통한 ‘마음공부방’ 운영 - 지역민을 위한 홈페이지, 지역에서 번뇌가 많은 사람

9) 현수막으로 원불교 이미지 교화 - 년초 교구에 건의하여 현수막을 제작하여 원불교의 이미지를 가꾸어 가도록 했다. 매월 마지막날 교당 교무님들이 하나씩 의견을 내도록 했다. 수돗물을 아깝시다. 불우이웃을 도움시다 등등의 물질적인 것은 많은데 정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구는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다. 현수막은 한 밤중에 건다. 태양이 올라오면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 1월- ○소망을 이루소서!○

10) ‘법 형제’ 만들기 - 혈연, 법연의 의미 강조

일인일도 운동, 어른들의 체제에서는 어렵다. 새로운 방안으로 법형제만들기 혈연도 있으나 법형제도 만들자. 4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11) ‘어린이 민속 큰잔치’를 통하여 지역민들의 교화

작년과 올해 2회, 1000명 정도 모였으며 자원봉사가 80명이었다. 자원봉사는 모두 지역주민들이었다. 서로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 이외 특별사업으로 원음예술단운영계획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시인들이 꽤 있었다. 계산해 보니 30여명이 된다. 또한 ‘마음공부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 2. 교육사업

♠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지 않는가?

1)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교당

① 회장단을 선출하지 않음 - 자모회를 구성하면 원장의 영역이 좋아진다. 즉 간섭이 많다. 원장의 영역을 확보하여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살려 갈 수 있도록 한다.

② 월1회 부모교육 실시- 일년에 10회를 한다.

③ 치맛바람, 봉투거래, 잡부금 근절 - 부모님들의 호기심 유도, 교사들에게 점심을 사주라고 할 경우, 일단 반도록 하고 전화를 한다. ‘먹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이의 교육비로 하겠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④ 입학식장에서 원장의 호칭 선언 - 교무님(부모, 원아) 저희 원에서 아빠 엄마 원아 모두 원장님이 아니라 교무님이라고 한다. 이것을 홍보하니 이제는 택시기사들도 원장이 아닌 교무님이라고 부른다.

⑤ 월요일마다 원아 등교시 승차 - 언제나 사탕 20개를 준비한다. 운전은 못하지만 차를 따라 다니며 아이와 함께 기다리는 동생, 할머니에게 사탕을 주고 인연을 맺고, 또 가족사항도 파악한다. 매우 호응이 좋다.

⑥ 형식적 행사가 아닌 정성스러운 행사 - 행사 때는 확실하게 하여 다녀간 후에 고마움을 갖도록 한다.(아빠 참여수업, 헌다식, 재롱잔치)

⑦ 컴퓨터를 통한 부모와의 대화

★ 아이사랑 365일 : <http://column.daum.net/yeong1103/> - 아이사랑에 관심 있는 회원 관리. 접속한 고객은 ‘고맙습니다.’ 라는 메모를 남기고 간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사이에 원불교 교문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현재 회원은 82명이다.

★ 유채꽃이 피는 마을 : <http://column.daum.net/yeong916/> - 마음이 맑아질 수 있는 동화나 수필로 대화의 장 마련.

\* 엄마 아빠는 입교증없는 교도라고 생각하고 진행한다. 언젠가는 입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아 한 명당 10명의 인연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드린다.

## 2) 유아 교육 기관이 없는 교당

- ① 일반인을 위한 법당 개방 필요(지역 행사, 반상회)
- ② 양성화(兩性化) 시대에 따른 일반인들의 지적 욕구 충족
- ③ 문화교실 - 예절, 다도, 붓글씨, 외국어, 한문.
- ④ 한글, 컴퓨터
- ⑤ 지역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 마련- 장학금 지급(원광 장학금 : 년 2회)
- ⑥ 일반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 - 공부방, 탁구장, 노래방...
- ⑦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방법 모색.

## 3. 자선사업

- 1) 지역사회를 위한 ‘원불교 자원 봉사대’ 결성- 지역의 애경사, 일반 행사에 접

근 - 복장, 어깨띠 준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년 말 연초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

2)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점 파악- 독거 어르신,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불우 시설, 환경 오염

3) 활동의 구체적 계획 수립 - 주 1회? 월 2회?

4) 독거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5) 봉사대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 무공해 농산물바자회, 일일찾집운영 (먹을 수 있는 차는 직접 준비하고, 운영은 총무가 알아서 한다. 전년도에는 360만원 순익을 얻어 70 가정과 군초소 방문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정착되면서부터 차 한잔이라도 더 팔아 주어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

6) 일관성 있는 행사 추진 : 불우 이웃돕기, 어린이 민속잔치, 마음공부방

#### 4. 원만한 사업 추진의 방안

1)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중요.

2) 각 사업의 위원장 및 위원을 선정하여 업무 분담.

3) 사업을 통한 기쁨 교류(기쁨, 보람, 유익으로 사명의식을 자각하게 함).

4) 분기별 사업성과를 법회시간에 보고하여 시상.

5) 년 말 사업성과 검토 보완.

#### 5. 교정원에 건의 사항

1) 전국 '현수막 교화'의 활성화를 위한 교화당국의 관심과 배려 - 매월 방향과 내용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2) 인터넷을 통한 '마음공부방' 운영 방안 모색 - 적극적인 인터넷 사이트 홍보와 인력 지원.

3) '어린이 민속 큰 잔치' 의 새로운 프로그램 연구 - 전통놀이의 다양한 변화 시도.

4) 교당 현황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 - 각 교당의 현황과 환경을 파악해서 교화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여유공간을 통한 교화활동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5) 교화, 교육, 자선 삼방면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민속잔치 프로그램, 도. 농간의 교화 차별화 방안.

제가 자신을 돌아 볼 때 70점도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당조직의 전략적 운영을 통한 성장교당 연구

나상호 교무(교화훈련부)

## 1. 머리말

사례연구 발표는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설문을 통한 통계 근거를 제시한다든가, 사례에 해당하는 곳의 현직에 있을 때 발표해야 신뢰도가 높게 마련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분당교당이라는 현직에서 벗어난 지 4년째 되는 이 시점에 성장 연구 사례를 발표하는 게 온당치 못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감히 발표에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사례발표이기에 듣는 이들이 판단할 수 있으리란 믿음에서이다. 또한 교당 설립 초기부터 보좌교무로 근무하면서 주임 교무님으로부터 교당 조직의 핵심인 교화단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일선에서 교화단 운영의 실효성을 몸소 체험했고, 이를 통해 근무 중이던 3년이란 단기간에 성장을 이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교당의 정책적인 교당으로 설립돼 여러 가지 시험적 여건 속에서 이뤄진 사례라는 점이다.

## 2. '성장'이란 의미의 논거

성장을 논할 때는 그 준거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 평가들의 해석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 1) 양적 성장, 질적 성장 : 양적 성장을 강조하면 질적 성장도 아울러 이뤄졌는지 묻는다.
- 2) 비교의 대상 : 비슷한 환경의 다른 교당에 비해 성장했는가, 해당교당을 신설 시점과 비교 시점과의 차이
- 3) 성장 기본 요건 : 다른 지역에 비해 성장할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 3. 교당 정책으로 설립된 분당교당의 실험적 의미

위의 세 가지는 다분히 비판적 입장에서 '성장'을 논하는 근거이지만, 고려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신도시 중 최대의 인구와 시설이 밀집된 분당 신도시는 교화상 여러 가지로 실험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1990년대 초, 정부에 의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교당에 서도 이에 부응, 서울동서부교구 시절, 동부교구는 분당신도시, 서부교구는 일산신도시에 교당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양 신도시에 교당이

설립됐다. 분당교당은 당시 이문교당에 직선거리로 1Km정도로 가까이 있던 석문교당이 교화가 침체되어 교당 이전을 모색하고 있던 차, 교당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석문교당을 매각, 분당교당을 설립한 것이다.

처음 출발한 분당교당은 ▷정책도시의 정책적 대응 ▷신도시교화의 모델 제시 ▷원불교 교화형태의 변화 시도 ▷교당의 기획적 발전이란 ‘거시적 교화목표’와 ▷공부하는 교당 ▷가정교화 역점 ▷자립기반 확립 ▷지역사회봉사라는 ‘미시적 교화목표’로 교화를 시작했다.

분당교당의 실험적 의미로는

1) 신도시 정서에 맞는 교화사업을 벌였다는 점이다.

▷매달 교도 교리공부 교재 발간, 전 교도 체계적인 교리공부 시행(『마음공부 길잡이』로 출간) ▷교화계획과 예결산을 투명하게 운영 ▷시민이 끌어내는 교화-문화유적답사, 만들어진양상블 운영, 합창단, 텃밭, 특별천도재(낙태 태아를 위한), 시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 ▷기성 교도와 새 교도의 융화의 장 마련(주말 모임, 산행 등) ▷상하 세대 교류프로그램-원로교도 나들이·교도 합동 여름 휴가·인화운동회 ▷지역사회에 보은하는 교화-독거노인 세대 돕기 ▷교당 훈련·휴양관 건립 운영-주 5일제 근무환경 대비한 새로운 교화 형태 시도 ▷잠자는 교도 이끌어 내기-교단 간행 유인물(책자, 테이프) 및 회보 지속적 보급

2) 남자교역자로부터 시작

3) 자가 건물 갖고 시작

4) 출가 교역자간 역할 분담(교당 운영, 교도 관리)

5) 교당교화백서 발간-신도시교화의 전범이 될 것

6) 교화단 조직만으로 교당교화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 4. 분당교당의 교당조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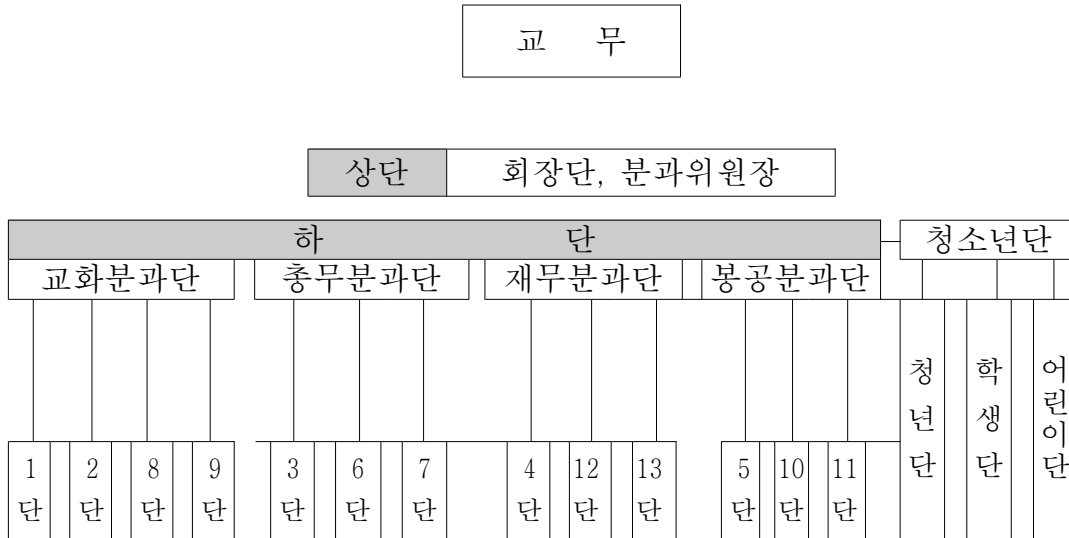
1) 교당 조직의 운영방향

① 모든 조직을 교화단 체제로 일원화한다.

② 교당을 각(角)단(;상단)의 협의에 의해 운영한다.

③ 월1회 운영을 위한 협의를 시행한다.

## 2) 교당 조직의 편제



## 3) 교화단 각단의 조직 및 활성화

### (1) 교화단 조직의 목적

- ① 모든 사람을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통치하여 가는 것이다.(통치)  
교당 조직을 교화단 조직으로만 구성
- ② 모든 사람을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마음공부를 시켜 인격을 변화시키고 지혜를 갖추게 하자는 것이다.(공부)  
공부하는 교화단, 매월 교화단 교재 발행(마음공부 길잡이)  
교도훈련과 여가를 위한 훈련관 건립(주 5일제 근무 대비)
- ③ 모든 사람을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사업하게 하여 복을 쌓아 가게 하자는 것이다.(사업)
  - 보은금 저축, 원로교도 나들이, 독거노인 돕기
  - 수해성금 100만원 교도 대표들이 KBS에 전달(분당교당 교도 일동)
  - 훈련원 불사(평떼기) : 훈련관 지으면서도 출석 교도수는 줄지 않았다.
- ④ 모든 사람을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조직을 넓혀 가자는 것이다.(조직확산)
  - 새로 온 교도와 쉬는 교도 관리 : 원불교신문, 원광, 예회보, 새 교도를 위한 자료 보급, 순교(순교비 지급), 산행

## (2) 교화단 편성과 운영의 원칙

교화단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준해 편성하고 운영하며, 교화단 이외의 조직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편성

- 교화단의 기본성을 살려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한다.
- 남·녀를 구분하여 편성한다.
- 일반, 청년, 학생, 어린이는 구분하여 편성한다.
- 동(洞) 또는 마을별로 편성한다. 따라서 교도가 이사를 가게 되어 마을이 달라지게 될 경우는 다음 해에 자연스럽게 다른 단으로 편성한다.
- 한 마을의 교도가 10명이 안되면 가까운 마을의 교도와 합하여 편성하고 20명 미만일 경우는 1개 단으로 하고 20명이 넘으면 2단으로 편성한다.(출석교도 기준)

### ② 운영

- 매월 1회 단회를 갖되 단원 가정을 순회하며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매달 두번째 주 예회에는 단원이 서로 얼굴을 대하는 시간을 형식 없이 갖고 출석을 확인한 후 헤어진다.
- 교도 서로의 친목을 위하여 때로는 단회를 합단하여 할 수도 있다.
- 단장과 중앙의 임기는 3년이며 피선거권이 있는 교도를 대상으로 단원들이 선거한다.
- 단장과 중앙은 당연직으로 교당의 요인이 된다.
- 각 단은 교당의 운영을 위한 4개 분과 가운데 하나의 분과에 소속시키고, 그 소속의 결정은 요인회의 결정에 따라 분과의 업무를 같이 수행 한다.

## (3) 각단(角團)-‘상단’의 임무와 역할

### ① 각단의 의미

- 각단은 교무를 보좌하는 단이다.
- 각단의 단원들은 교도들의 모범적 구성원이다.
- 각단은 교당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성격을 가진다.
- 각단의 단원들은 법의 정한 바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교도이다.

### ② 각단의 구성 및 임명

- 각단의 구성은 회장단과 각 분과의 분과장으로 한다.

### ③ 임명

- 현행 교규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

### ④ 각단의 임무와 역할

· 각단의 단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가진다.  
단 그 시행은 교당 교의회의 결의를 통해 시행하되 교무의 재가 또는 협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당 운영>

- ▷ 각종 회의 주관
- ▷ 교산(敎産) 주관
- ▷ 예결산 주관
- ▷ 유지 운영 주관
- ▷ 건물, 도량수호 및 관리 주관

#### <교당 교화>

- ▷ 교화 행사 참여
- ▷ 교화단 관리 참여

※ 교화단에 관계된 사항은 단장 중앙의 임무와 역할을 참조한다.

#### <교당 인력관리>

- ▷ 육영생 육성 및 장학생 육성 : 육영생 육성과 장학생 육성은 교단의 미래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할 교도회장의 임무이자 역할 분야이다. 육영생 육성은 학생회원이나 교도 자녀 기타 교역을 희망하는 사람을 적극 지원하는 일이고, 장학생 육성은 교당 주변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을 말한다.
- ▷ 교역자 관리 : 교역자 관리는 교역에 임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육신의 건강 관리, 또 신심 공심 공부심이 일어나도록 마음써 가는 것을 말한다. 교역자 관리는 출가 교역자관리와 재가 교역자 관리가 있다. 출가 교역자 관리는 전무출신의 건강관리와 생활에 불편이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재가 교역자 관리는 재가 교역자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일어나게 하는 일과 애경사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일을 말한다.

#### <기관 확충>

- ▷ 자선기관 설립 및 관리 : 자선기관 설립과 관리는 정상적인 교당이 자체적으로 교당이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자선기관을 만들어 관리하는 일이다. 그 일반적인 예로써는 노인들의 후생을 돌보는 양로원과 수양원이 있고,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보육원 형태의 기관을 들 수 있다.

▷ 교육 훈련기관 설립 및 관리 : 교육 훈련기관 설립 및 관리는 자체적으로 교당이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훈련기관을 만들어 관리하는 일이다. 자체적인 교육기관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자체적인 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훈련관과 휴양관이 이에 해당한다.

#### <지역사회 봉사 주관>

- ▷ 불우 이웃돕기 : 불우 이웃돕기는 교당 주변의 주민 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제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그 예로써는 독거노인, 영세민, 청소년 가장, 재난을 당한 사람, 무의탁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도움 주는 일을 펴 가는 것을 말한다.
- ▷ 지역 주민의 정신계도 : 지역 주민의 정신 계도는 윤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적 축을 형성해 가는 일이다. 그 예로써는 지역 어린이를 위한 예절교육, 환경운동, 교당훈련관이 있을 때는 훈련관을 사용해 주민을 계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교양 강좌 등이 이에 속한다.
- ▷ 여가 선용의 길을 열어 준다. : 여가 선용의 길을 열어 주는 일은 지역 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가정의 행복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일로써 교당을 활용하여 요가, 한문 교실, 꽃꽂이 교실, 서예교실, 예절 교실 등이 이에 속한다.

#### <섭 외>

- ▷ 교당 밖의 업무 : 교당 밖의 업무는 지역사회 교화를 위해 지역사회를 상대로 수행해야 할 업무와 교단 내적으로 교당을 대변하는 일을 수행함을 말한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와(군과 면)의 관계, 파출소와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우체국과의 관계,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일 등을 사전 사후에 조율하는 일이다. 중앙 교의회 참여, 교구교의회 참여, 타교당 봉불식 참여, 기타 교당 교구 행사 참여 등의 일이다.
- ▷ 교당 안의 업무 : 교당 안의 업무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함에 교당교의회원과 교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쁘게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게 사전에 조율하고 사후 문제를 수습해 가는 것을 말한다.

#### (4) 향단-‘하단’의 임무와 역할

향단의 각분과별 직능은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교화분과

### <법회 준비 및 안내>

- ▷ 법회 준비 : 법회가 열리기 전 날이나 당일 법회가 열리는 1시간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일로 법회가 열리는 대각전이나 법당의 주변 정리 및 청소, 의자가 있는 교당은 의자 정돈, 온냉풍기 가동에 따른 준비 등이 이에 속한다. 또는 설법이나 설교를 담당할 교무의 법문을 녹음하는 준비 등이다.
- ▷ 법회 안내 : 법회가 열리는 당일 1시간 전까지 4-6명의 교도가 일찍 나와서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특히 새로 나온 사람을 친절히 안내하는 일이다. 또는 당일에 사용되는 회보, 신문, 원광 등을 제공하는 일이다.

### <회보 제작, 배포, 발송>

- ▷ 일요일예회나 법회에 필요한 유인물을 제작, 배포, 발송하는 일이다. 대체적으로 교무가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교화분과가 제작에서 발송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교당을 따라서는 제작과 배포 및 발송을 교도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의 교당은 교무가 담당하고 있어 교화 업무에 전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화분과가 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도 훈련에 관한 사항>

교도의 신앙생활, 수행 생활, 교당 생활, 가정 생활, 교화 활동, 교역자 역할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훈련에 대한 준비와 보조 역할을 한다. 때로 학생 어린이 훈련의 경우는 훈련 요원으로 활동한다.

###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교당에서 일어나는 각종 의식과 행사의 준비와 시행의 보조는 물론 참석에 앞장선다. 의식의 경우 때로는 독경반으로 역할하는 일.

㉠의식 : 4축2재, 열반식과 발인식, 천도재, 합동회갑식, 입교식, 봉안식 등이 한 예이다.

㉡행사 : 성지순례, 단별합창경연, 가족성가경연, 대각개교절 전야제, 교도하기 휴양, 문화유적답사 등이 한 사례이다.

### <신입교도 관리에 관한 사항>

새로 입교한 교도가 정착하여 신앙 수행을 잘할 때까지 관리하는 일.

그 예는 일요일예회에 참석하면 반가히 맞이하는 일, 기성 교도로 정착할 때까지 전화나 순교, 우편물 우송 등을 시행하는 일 등이다.

#### <대외 교화를 위한 사항>

현재 교도가 아닌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일.

그 예는 교화 대상자가 선택되었거나 교당에 나오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순교나 우편물 투입, 또는 교화와 관련된 일에 참석해야 할 경우 출석하는 일 등이다.

#### <청소년 및 어린이 교화에 관한 사항>

청소년과 어린이 범죄 및 훈련에 직간접으로 참여한다.

그 예는 범죄 및 훈련의 진행, 인솔, 간식 및 식사 제공 등이 한 사례이다.

#### <교회단 관리 및 결석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각교회단의 월간 출석율, 교회단회 시행 여부, 순교 사항, 입교 연원 사항, 결석 사항을 파악하여 출석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순교하고 관리하는 일.

#### <순교에 관한 사항>

결석 교도와 새교도는 주위를 환기시키는 뜻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이다. 순교의 방법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띄우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 방문하는 사람으로 방법을 살핀다면 단독 순교, 집단 순교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순교의 시기는 일요일이 지난 다음 날, 일요일이 오기 전 하루나 이틀 전에 하면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볼 때 다른 날에 비해 효과가 크다.

#### <교도 애경사 관리>

교도 애경사를 관리하는 목적은 인정을 건네어 신앙 수행의 보람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이다. 그 방법은 순교의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애사 : 열반, 사고, 좌천, 재해, 낙방, 진급 누락 등이 있다.

㉡경사 : 출생, 약혼, 결혼, 사업 확장, 개업, 진급, 합격, 당첨, 집마

런 등이 있다.

<기타 교화에 관한 사항>

앞에 제시한 사항이 아니라도 교당 교화와 관계가 되는 일은 모두 교화분과의 일에 속한다.

② 봉공분과

<교당봉공활동에 관한 사항>

교당에서 있어지는 봉공관계 제반 활동을 말한다.

그 예로는 교도 경노행사, 교도의 이익을 위한 판매 활동, 벽지 교당 돕기, 벽지 어린이 초청 행사, 소년원 방문, 양로원 방문, 보육원 방문, 농촌 일손 돕기 등이 이에 속한다.

<교구 및 중앙 봉공회에 관한 사항>

교구나 총부 봉공회가 연합으로 펼치는 제반 행사에 참여하여 봉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써는 교구 바자회, 재해 지역 주민 돕기, 해외 난민 돕기, 시립병원 봉사 등이 이에 속한다.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사항>

교당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펼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그 예로써는 지역 경로당 방문, 무의탁 노인 찾아 돕기, 청소년 가장 돕기, 어려운 학생 장학금 전달, 지역 봉사 활동 참여 등이다.

<생협활동에 관한 사항>

무공해 식품을 교도에게 판매하여 유기농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고, 자연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써는 서울 생협과의 연결 활동, 영산 성지 유정란 보급, 군서 무공해 고추 보급, 영산 금평 무공해 쌀 보급, 우리 밀 살리기 등이다.

<환경, 재생 운동에 관한 사항>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일을 솔선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써는 세재사용 억제, 음식물 찌꺼기 버리지 않기, 비닐 봉지나 제품 덜 쓰기, 물 소비 줄이기, 산에 갔을 때 쓰레기 되가져 오기, 쓰레기 분리 수거하기, 폐품 활용하기 등이다.

<기타 봉공 및 자선 활동에 관한 사항>

위에서 설명한 사항이 아닌 제반 봉공활동을 말한다.

③ 총무분과

<교당 행사 기획 및 정리>

교당에서 일어나는 제반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서는 교당의 역사를 자료로 남김과 동시에 다음 행사의 기획 자료가 되게 한다.

<교당 교의회 사무>

임시 및 정기로 열리는 교당 교의회와 수시로 열리는 교당 교의회 의장단의 회의를 준비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말한다.

<교당 운영 계획>

교당의 교화, 재정, 봉공, 관리 등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펴 가고 해결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대외 업무>

교당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관공서 업무, 인허가 업무, 협조 의뢰 등의 대외 업무를 말한다.

<타 분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교화분과, 재정분과, 봉공분과와 관계없는 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재무분과

<예산 및 결산 업무>

교당이 한 해 동안 교화, 봉공, 관리, 기타 등에서 쓰여질 비용에 따른 수입을 확보하고 지출을 계획하는 업무와 교당 신축 및 개축, 훈련 및 교육관의 신축과 개축, 어린이집의 신축과 개축 등을 위해 수입을 예정하고 지출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금, 헌공금, 회사금 관리>

교당의 제반 수입금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관리>

관리비, 전화료, 수도세, 토지 및 건물 매매에 따른 세금 등 국가와 지방, 또는 각 기관과 관계하여 일어나는 세무 업무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업무>

교당의 수입과 지출, 자금을 따른 장부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품 및 집기 관리>

<교산 운용에 관한 사항>

교당의 발전을 위해 동산과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교당 건물의 수호 및 관리>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교화분과, 총무분과, 봉공분과와 관계되지 않는 재무사항을 말한다.

(5) 저단 조직 및 활성화

① 단장 중앙의 임무와 역할

<정신자세>

단장과 중앙은 단원을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따라서 단장과 중앙은 다음의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

㉠ 단원보다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믿는 마음 즉 신심(信心)이 앞서야 한다.

㉡ 단원보다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알아 실천하려는 마음 즉 공부심(工夫心)이 앞서야 한다.

㉢ 단원보다 정신, 육신, 물질로 공을 위하여는 마음 즉 공심(公心)이 앞서야 한다.

### <임무와 역할>

- ㉠교무를 대신하여 단을 운영한다.
- ㉡단원을 순교한다.
- ㉢단원의 공부를 지도한다.
- ㉣단원을 훈련시킨다.
- ㉤단원의 상담자가 되어 준다.
- ㉥단원의 애경사를 살피어 함께 한다.
- ㉦법회나 훈련시에 단원의 출석을 권유한다.
- ㉧새 교도를 늘려 단을 키워 간다.
- ㉨단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

### <단원관리>

#### ㉠단회

- \* 매월 두번째 주 예회가 끝난 뒤에는 단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출석을 점검하고 안부를 묻는 정도의 형식 없는 약식 단회를 한다.
- \* 매월 1회 가정단회를 하여 단원을 관리한다.

#### ㉡순교

- \* 단원에게 연고가 생기면 단원들과 함께 순교한다.
- \* 예회날이 가까워 오면 전화하여 예회에 참석하도록 챙긴다.
- \* 때때로 전화 순교를 한다.

#### ㉢상담

- \* 자연스럽게 단원의 신앙과 수행에 대한 상담에 응한다.
- \* 가족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가정생활에 대한 상담에 응한다.
- \* 교당생활에 대한 상담에 응한다.

#### ㉣애경사

- \* 단원의 경사(탄생 생일 진학 성년 결혼 진급 당선 회갑 등)에 기쁨을 함께 한다.
- \* 단원의 애사에 슬픔을 같이 나눈다.  
(병고 사고 낙방 좌천 사망 재 제사 등)

#### ㉤출석 독려

- \* 모든 법회에 참석을 권유한다.
- \* 모든 법회시 참석되지 않았을 때는 그 연유를 살피고 다음에는 참석할 수 있게 한다.

#### ㉥새교도 맞이

새교도가 오면 단원 모두가 반갑게 맞이하되 단장과 중안은 각별히 챙긴다.

- \* 단원이 모두 모여 환영의 인사를 나눈다.
- \* 교도 기초조사서를 준비하여 작성하도록 권한다.
- \* 원불교에 처음 찾아왔다면 단원들이 서로 예회 진행에 대하여 가까이서 알려준다.
- \* 회보나 기타 원불교 안내물을 제공한다.
- \* 예회가 끝나고 갈 때는 친절히 배웅하고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권한다.
- \* 금요일쯤 전화를 하여 예회 참석을 권한다.
- \* 교당의 예절에 대한 유인물을 제공하고 간단히 소개하여 준다.
- \* 몇 주가 지나면 입교를 권한다.
- \* 단회에 참석하도록 유도한다.

#### <교화단 활동>

- ㉠ 단회를 갖는다. 단회의 식순은 아래와 같다.  
 개회/ 독경(일원상서원문)/ 심고/ 교전합독/ 마음공부 점검표 제출/  
 회화/ 광고 및 협의/ 독경(반야심경)/ 성가(교화단가 성가20장)/폐회
- ㉡ 단원들이 함께 훈련한다.
- ㉢ 단원들이 함께 봉공활동을 한다.
- ㉣ 연원을 늘려 간다.
- ㉤ 애경사에 시간과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
- ㉥ 예회에 함께 출석한다.

#### <주의 및 금기 사항>

- ㉦ 주의 사항
  - \* 매주 화요일까지 단원의 결석 사유를 교무에게 보고한다.
  - \* 단장·중앙의 훈련에 빠지지 않는다.
  - \* 매월 1회 가정을 순회하며 단회를 하되 음료수 정도만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 꼭 식사를 해야 할 경우는 국수 정도로 한다.
  - \* 새 교도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기울인다.
  - \* 단회의 결과를 교무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별지 참조)
  - \* 예회 때에는 단원보다 일찍 참석하고, 단원의 출석을 점검한다.
  - \* 단원들이 모였다가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교전을 봉독한다.
  - \* 단원들에게 봉공 정신을 깊게 심도록 노력한다.
- ㉧ 금기 사항
  - \* 단원을 상대로 영리 행위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 단원을 편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 단회시에 과도하게 음식을 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 \* 단원의 집에 너무 일찍(8시 이전) 또는 너무 늦게(오후 10시 넘어서) 전화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해야 한다.
- \* 공중사를 단독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 인심을 모으려는 일이 없도록 한다.

#### 5. 마무리

이상에서 발표한 사례는 교당 조직에 있어서 교화단 조직 외에는 다른 조직 구성을 배제한 체제에서의 운영 예이다. 이는 원기84년 1월 31일 개정된 『교당 규정』에 여성회, 봉공회, 청운회 등의 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과는 배치된다.

문제는 원불교 교화정체성으로서 기본적 조직운영 조직인 교화단체제가 교화를 성장시키는 조직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별개의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교도들에게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안겨 주고, 다양한 조직 참여에 의한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당 내 교화단 이외의 조직을 구성할 때는 교화단원과 출석교도 등 조직이 가능한 적정 규모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화 성장 조직으로서 교화단, 그것은 조직이 형성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성장지표로 삼을 수 없다. 교도들이 교화단 운영만으로도 삼대력 증진, 교당 교화성장, 교법 실천(보은봉공 등)을 자신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끌어 올려야 한다.

현재와 같은 운영 수준으로 교화단을 원불교 교화 정체성의 한 예로 인정하기 어렵다.

# 교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창민 교무(원광대)

## I.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 목적: 교회 발전에 있어 어떤 구조적 요인이 중요한가?

- 1) 지역 요인
- 2) 교무 요인
- 3) 교당 요인(역사)

2. 연구 방법: 이를 평가해 보기 위해

- 1) 자료 수집:
  - ①교회 상황 보고서의 2차 자료를 재분석하고 (467개 교당에 관한 자료)
  - ②교회가 잘 되고 있는 교당 13개를 선정하여 설문 조사 (798명)
- 2) 자료 분석: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교차분석, ANOVA, Multiple Regression 등의 분석을 하였다.

## II. 조사 결과의 분석: 이차 자료 분석

1. 출석률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 1) 전국에 있는 교당 467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당 일반교도 평균 법회 출석률은 41명 정도이었다.<sup>1)</sup> 표준 편차는 38명이었다.<sup>2)</sup>
- 2) 이를 분포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 ☞ 10명 미만인 교당도 13.7%에 달하였다.
  - ☞ 일반 교도 출석이 30명 이하인 교당이 전체 교당의 52.1%에 달하였다
  - ☞ 51명을 넘는 교당은 27.4%, 101명을 넘는 교당은 6.4%에 불과하였다.

---

1) 청년은 교당 평균 3.76명(표준편차는 6.55명)  
학생은 교당 평균 4.95명(표준편차는 7.97명)  
어린이는 교당 평균 8.36명(표준편차는 9.18명)

2) 41명±38명(1SD 범위 내에 전체 교당의 68%가 위치해 있고, 41명±76명(2SD 범위 내에 전체 교당의 95%가 위치해 있음을 의미한다).

< 표 1 > 출석률 범주별 교당 빈도 분포 (빈도는 교당의 숫자를 의미함)

	-10명	11-20명	21-30명	31-40명	41-50명	51-75명	76-100	101명+	계
빈 도	64	82	97	52	44	66	32	30	467
비 율	13.7	17.6	20.8	11.1	9.4	14.1	6.9	6.4	100.0
누적빈도	13.7	31.3	52.1	63.2	72.6	86.7	93.6	100.0	

3) 광역 지역과 도시·농촌 지역별 평균 출석률 분포를 보면 <표 2>와 같다.

< 표 2 > 교구별, 도시·농촌지역별 일반교도 평균 출석률

평 균 출석률	전체	교구별				도시·농촌별			
		서울경기 강 원	충남·북	전남북 제 주	경남북 부 산	면·리	읍 지 역	기타시 지 역	특, 직, 광역시
-20명	31.3	24.8	39.0	29.9	36.3	47.3	54.3	27.2	16.9
21-40명	31.9	26.7	34.1	31.5	36.3	38.2	23.5	33.3	32.4
41-60명	17.6	20.0	14.6	17.8	16.1	7.3	12.3	19.0	22.8
61명+	19.3	28.6	12.2	20.8	11.3	7.3	9.9	20.5	27.9
합 계 (사례수)	100.0 (467)	100.0 (105)	100.0 ( 41)	100.0 (197)	100.0 (124)	100.0 ( 55)	100.0 ( 81)	100.0 (195)	100.0 (136)
유의 검증	$X^2 = 15.87 \quad df = 9 \quad N.S.$					$X^2 = 51.1 \quad df = 9 \quad p < 0.001$			
평균	38.3	46.3	32.7	45.5	31.2	26.2	29.3	44.1	48.5

※ 위의 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 교구를 광역 지역으로 묶어서 분류한 경우, 이것은 출석률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써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출석률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은 도시·농촌의 지역별 구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면·리 지역은 평균 26명 정도의 출석률을 보인 반면 시지역은 평균 44명 이상의 평균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현재 교단의 교구 분류 체계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교구마다 출석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앙 교구는 평균 64명 정도, 서울과 영광 교구가 평균 53-56명 정도인 반면, 강원과 제주는 각각 25명과 18명 정도이었다 (<표 3a> 참조).

< 표 3a > 교구별 일반 교도 출석률

(단위: 법회 평균 출석 인원수)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중앙	영광	광주 전남	제주	전체
평 균	56.0	38.0	24.8	31.7	33.8	25.3	33.3	33.0	45.4	63.8	53.2	34.9	18.4	40.7
교당수	60	29	16	31	10	31	39	54	85	37	17	46	12	467
ANOVA	MSB = 5487.7    MSW = 1356.4    F = 4.05    p<0.001													

4) 도·농의 지역별 구분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구별 일반 교도 출석률을 살펴보면 <표 3b>와 같다. 전북 교구와 영광 교구는 면·리 지역에서도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각각 29.1 대 38.6명). 그러나, 충북이나 대구·경북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은 면·리에 소재하고 있는 교당의 출석률이 3-7명으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읍 지역 교당도 전북(55.5명)과 영광지역(80.0명)은 매우 높은 반면, 경기·인천(4.5명), 충북(6.5명), 제주(14.7명) 등은 매우 출석률이 낮았다. 따라서 인지도가 높은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읍을 포함한 농촌 지역까지도 그런 대로 교화가 잘 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은 읍면 지역의 교화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하겠다.

☞ “기타 시”<sup>3)</sup>의 경우 중앙교구(63.8명)와 충북 교구(61.0명)가 출석률이 매우 높은 반면, 대전·충남(22.4명), 서울(25.0명),<sup>4)</sup> 대구·경북(24.9명), 부산(21.5명), 제주(26.0명) 교구는 출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직할·광역시외의 경우 대체적으로 출석률이 높은 편이나 부산 교구(33.5명)와, 대구·경북 교구(45.4명)는 매우 낮은 편으로 이 지역 교화가 많이 침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3) 서울 특별시, 부산직할시, 그리고 기타 광역시들을 제외한 중소도시를 의미함.

4) 서울 교구에 속해 있는 시지역 교당을 의미함

< 표 3b > 도·농의 지역별 구분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구별 일반 교도 출석률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중앙	영광	광주 전남	제주	전체
면·리	-	-	-	20.0 (4)	7.0 (1)	6.0 (2)	16.3 (3)	-	29.1 (22)	-	38.6 (11)	20.6 (11)	3.0 (1)	26.2 (55)
읍지역	15.0 (1)	4.5 (2)	16.5 (8)	23.9 (8)	6.5 (4)	10.6 (8)	26.4 (11)	-	55.5 (12)	-	80.0 (6)	26.1 (15)	14.7 (6)	29.3 (81)
기타시	25.0 (8)	38.7 (23)	33.1 (8)	22.4 (10)	61.0 (5)	24.9 (13)	38.4 (25)	21.5 (2)	50.1 (51)	63.8 (37)	-	41.9 (8)	26.0 (5)	44.1 (195)
특직광	61.7 (51)	51.0 (4)	-	54.0 (9)	-	45.4 (8)	-	33.5 (52)	-	-	-	54.3 (12)	-	48.5 (136)
전 체	56.0 (60)	38.0 (29)	24.8 (16)	31.7 (31)	33.8 (10)	25.3 (31)	33.3 (39)	33.0 (54)	45.4 (85)	63.8 (37)	53.2 (17)	34.9 (46)	18.4 (12)	40.7 (467)

5) 창립연도를 통제한 결과는 <표 3c>에 제시되어 있다.

< 표 3c > 창립연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교구별 일반 교도 출석률

창립 연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중앙	영광	광주 전남	제주	전체
-50년	95.8 (4)	-	61.0 (2)	55.8 (4)	-	57.0 (4)	51.8 (10)	51.6 (11)	55.3 (36)	120.2 (6)	81.8 (9)	72.3 (7)	-	64.5 (93)
51-60	65.2 (16)	74.2 (5)	46.0 (3)	34.7 (7)	79.0 (2)	36.8 (8)	28.5 (10)	42.3 (12)	32.9 (20)	76.0 (7)	34.7 (3)	31.6 (14)	30.0 (3)	44.2 (110)
61-70	55.7 (28)	40.5 (6)	18.5 (2)	33.5 (8)	32.6 (5)	19.9 (11)	28.4 (16)	25.6 (23)	50.9 (17)	63.6 (13)	13.8 (4)	28.1 (19)	19.5 (6)	37.5 (158)
71-85	31.2 (12)	27.2 (18)	11.1 (9)	20.6 (12)	5.7 (3)	5.3 (8)	14.0 (3)	15.1 (8)	28.9 (12)	25.6 (11)	10.0 (1)	20.5 (6)	4.7 (3)	20.8 (106)
전 체	56.0 (60)	38.0 (29)	24.8 (16)	31.7 (31)	33.8 (10)	25.3 (31)	33.3 (39)	33.0 (54)	45.4 (85)	63.8 (37)	53.2 (17)	34.9 (46)	18.4 (12)	40.7 (467)

☞ 위의 <표 3c>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일반 교도 법회 출석률은 교당의 역사에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원기 50년 이전에 창립한 교당은 평균 출석률이 64.5명인데 반해, 원기 51-60년 사이에 창립한 교당은 44.2명, 61-70년 사이에 창립한 교당은 37.5명, 그리고 원기 71년 이후에 창립한 교당은 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 창립한 교당으로 비교적 기반을 잘 다져 가고 있는 곳은 서울, 경기·인천 교구, 그리고 전북 및 중앙 교구이다. 충북, 대구·경북 지역, 제주 지역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 경남, 부산, 제주 지역의 교회가 매우 열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일부 전통 있는 교당을 제외하고 대부분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① 창립 연도와 도농 지역별 구분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구별 일반 교도 평균 출석률을 분석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d>에서부터 <표 3g>까지).

☞ 원기 50년 이전에 창립한 교당 가운데서 전북과 영광 교구의 면·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교당들은 비교적 높은 출석률을 보인 반면, 대전·충남, 경남 지역, 광주·전남 교구 면·리에 분포해 있는 교당들은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읍 지역도, 영광과 대전·충남, 전북 지역 교구 교당들은 비교적 높은 출석률을 보인 반면, 강원, 경남, 광주·전남 교구 읍 지역 교당들은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 기타 시의 경우 중앙교구, 강원교구, 광주·전남 교구는 비교적 높은 출석률을 보인 반면, 대구·경북교구는 매우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 특·직·광역시에 분포해 있는 교당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중앙교구(120.2명)가 매우 높고, 서울교구(95.8명), 영광(81.8명), 광주·전남(72.3명)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 전북 교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 표 3d > 원기 50년 이전에 창립한 교당 가운데서 교구별 일반 교도 출석률

창립 연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중앙	영광	광주 전남	제주	전체
면·리	-	-	-	17.0 (2)	-	-	25.0 (1)	-	46.7 (9)	-	56.6 (5)	32.5 (2)	-	43.4 (19)
읍지역	-	-	32.0 (1)	72.0 (1)	-	-	45.5 (2)	-	61.3 (8)	-	114.0 (4)	33.0 (1)	-	69.1 (17)
기타시	-	-	90.0 (1)	-	-	32.0 (2)	57.4 (7)	-	57.0 (19)	120.2 (6)	-	71.0 (2)	-	67.6 (37)
특직광	95.8 (4)	-	-	117.0 (1)	-	82.0 (2)	-	51.6 (11)	-	-	-	133.0 (2)	-	74.9 (20)
전 체	95.8 (4)	-	61.0 (2)	55.8 (4)	-	57.0 (4)	51.8 (10)	51.6 (11)	55.3 (36)	120.2 (6)	81.8 (9)	72.3 (7)	-	64.5 (93)

< 표 3e > 원기 51-60년에 창립한 교당 가운데서 교구별 일반 교도 출석률

창립 연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중앙	영광	광주 전남	제주	전체
면·리	-	-	-	25.0 (1)	7.0 (1)	-	-	-	18.0 (8)	-	34.7 (3)	17.5 (4)	-	20.6 (17)
읍지역	-	-	57.0 (1)	25.0 (1)	-	11.5 (2)	18.5 (4)	-	67.5 (2)	-	-	28.8 (6)	-	30.4 (16)
기타시	34.0 (1)	68.5 (4)	40.5 (2)	36.0 (4)	151.0 (1)	53.3 (3)	35.2 (6)	36.0 (1)	37.9 (10)	76.0 (7)	-	70.0 (1)	30.0 (3)	50.3 (43)
특직광	67.3 (15)	97.0 (1)	-	49.0 (1)	-	37.0 (3)	-	42.8 (11)	-	-	-	43.0 (3)	-	54.9 (34)
전 체	65.2 (16)	74.2 (5)	46.0 (3)	34.7 (7)	79.0 (2)	36.8 (8)	28.5 (10)	42.3 (12)	32.9 (20)	76.0 (7)	34.7 (3)	31.6 (14)	30.0 (3)	44.2 (110)

< 표 3f > 원기 61-70년에 창립한 교당 가운데서 교구별 일반 교도 출석률

창립 연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중앙	영광	광주 전남	제주	전체
면·리	-	-	-	21.0 (1)	-	12.0 (1)	12.0 (2)	-	21.0 (2)	-	15.5 (2)	18.2 (5)	-	17.0 (13)
읍지역	-	-	-	34.0 (1)	9.0 (1)	16.7 (3)	25.5 (4)	-	15.0 (1)	-	12.0 (2)	25.8 (6)	19.3 (4)	21.2 (22)
기타시	18.0 (2)	40.5 (6)	18.5 (2)	23.3 (3)	38.5 (4)	17.3 (4)	32.9 (10)	7.0 (1)	57.7 (14)	63.6 (13)	-	23.8 (4)	20.0 (2)	41.8 (65)
특직광	58.6 (26)	-	-	47.7 (3)	-	29.3 (3)	-	26.4 (22)	-	-	-	48.3 (4)	-	43.6 (58)
전 체	55.7 (28)	40.5 (6)	18.5 (2)	33.5 (8)	32.6 (5)	19.9 (11)	28.4 (16)	25.6 (23)	50.9 (17)	63.6 (13)	13.8 (4)	28.1 (19)	19.5 (6)	37.5 (158)

< 표 3g> 원기 71-85년에 창립한 교당 가운데서 교구별 일반 교도 출석률

창립 연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중앙	영광	광주 전남	제주	전체
면·리	-	4.5 (2)	-	12.0 (5)	-	0.0 (1)	-	-	11.3 (3)	-	10.0 (1)	15.5 (2)	3.0 (1)	7.8 (6)
읍지역	15.0 (1)	-	7.2 (6)	-	5.7 (3)	4.0 (3)	23.0 (1)	-	26.0 (1)	-	-	-	5.5 (2)	9.5 (26)
기타시	26.0 (5)	28.7 (13)	19.0 (3)	3.3 (3)	-	7.5 (4)	9.5 (2)	-	35.9 (8)	25.6 (11)	-	28.0 (1)	-	24.3 (50)
특직광	38.2 (6)	35.7 (3)	-	44.3 (4)	-	-	-	15.1 (8)	-	-	-	21.3 (3)	-	29.8 (24)
전 체	31.2 (12)	27.2 (18)	11.0 (9)	20.6 (12)	5.7 (3)	5.39 (8)	14.0 (3)	15.1 (8)	28.9 (12)	25.6 (11)	10.0 (1)	20.5 (6)	4.7 (3)	20.8 (106)

☞ 원기 71-85년 사이에 창립한 교당들 가운데서 도·농의 변수를 통제한 상

태에서 교구별 일반교도 출석률 평균치를 살펴보면(<표 3g>),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남, 전북, 중앙,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나, 다른 지역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먼·리 지역이나 읍지역에서는 출석인원 10명 이하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표 4a > 창립연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교구별 일반교도 평균 출석률

평균 출석률	원기 50년 이전 창립					원기 51-60년도 창립				
	서울경기 강 원	충남·북	전남북 제 주	경남북 부 산	소 계	서울경기 강 원	충남·북	전남북 제 주	경남북 부 산	소 계
-20명	0.0	25.0	6.9	16.0	9.7	4.2	11.1	36.2	23.3	23.6
21-40명	33.3	25.0	27.6	28.0	28.0	20.8	55.6	38.3	36.7	35.5
41-60명	0.0	0.0	29.3	16.0	22.6	20.8	22.2	12.8	26.7	19.1
61명+	66.7	50.0	36.2	40.0	39.8	54.2	11.1	12.8	13.3	21.8
합 계 (사례수)	100.0 ( 6)	100.0 ( 4)	100.0 ( 58)	100.0 ( 25)	100.0 ( 93)	100.0 ( 24)	100.0 ( 9)	100.0 ( 47)	100.0 ( 30)	100.0 (110)
유의 검증	$X^2 = 8.41$ $df = 9$ N.S.					$X^2 = 26.87$ $df = 9$ $p < 0.001$				

< 표 4b > 창립연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교구별 일반교도 평균 출석률

평균 출석률	원기 61-70년도 창립					원기 71-85년도 창립				
	서울경기 강 원	충남·북	전남북 제 주	경남북 부 산	소 계	서울경기 강 원	충남·북	전남북 제 주	경남북 부 산	소 계
-20명	5.6	15.4	33.9	38.0	27.2	59.0	80.0	54.5	78.9	64.2
21-40명	36.1	53.8	32.2	46.0	39.2	20.5	6.7	27.3	21.1	20.8
41-60명	36.1	23.1	13.6	16.0	20.3	7.7	6.7	12.1	0.0	7.5
61명+	22.2	7.7	20.3	0.0	13.3	12.8	6.7	6.1	0.0	7.5
합 계 (사례수)	100.0 ( 36)	100.0 ( 13)	100.0 ( 59)	100.0 ( 50)	100.0 (158)	100.0 ( 39)	100.0 ( 15)	100.0 ( 33)	100.0 ( 19)	100.0 (106)
유의 검증	$X^2 = 29.69$ $df = 9$ $p < 0.001$					$X^2 = 9.33$ $df = 9$ N.S.				

< 표 5a > 창립연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농촌지역별 일반교도 평균 출석률

평균 출석률	원기 50년 이전 창립					원기 51-60년도 창립				
	면·리	읍지역	기타시	광역시	소계	면·리	읍지역	기타시	광역시	소계
-20명	10.5	5.9	10.8	10.0	9.7	52.9	37.5	18.6	8.8	23.6
21-40명	47.4	23.5	21.6	25.0	28.0	47.1	37.5	37.2	26.5	35.5
41-60명	21.1	29.4	27.0	10.0	22.6	0.0	18.8	25.6	20.6	19.1
61명+	21.1	41.2	40.5	55.0	39.8	0.0	6.3	18.6	44.1	21.8
합 계 (사례수)	100.0 ( 19)	100.0 ( 17)	100.0 ( 37)	100.0 ( 20)	100.0 ( 93)	100.0 ( 17)	100.0 ( 16)	100.0 ( 43)	100.0 ( 34)	100.0 (110)
유의 검증	$X^2 = 8.54 \quad df = 9 \quad N.S.$					$X^2 = 30.25 \quad df = 9 \quad p < 0.001$				

< 표 5b > 창립연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농촌지역별 일반교도 평균 출석률

평균 출석률	원기 61-70년 창립					원기 71-85년도 창립				
	면·리	읍지역	기타시	광역시	소계	면·리	읍지역	기타시	광역시	소계
-20명	69.2	63.6	21.5	10.3	27.2	100.0	88.5	54.0	50.0	64.2
21-40명	30.8	27.3	41.5	43.1	39.2	0.0	11.5	28.0	20.8	20.8
41-60명	0.0	9.1	18.5	31.0	20.3	0.0	0.0	8.0	16.7	7.5
61명+	0.0	0.0	18.5	15.5	13.3	0.0	0.0	10.0	12.5	7.5
합 계 (사례수)	100.0 ( 13)	100.0 ( 22)	100.0 ( 65)	100.0 ( 58)	100.0 (158)	100.0 ( 6)	100.0 ( 26)	100.0 ( 50)	100.0 ( 24)	100.0 (106)
유의 검증	$X^2 = 40.93 \quad df = 9 \quad p < 0.001$					$X^2 = 17.39 \quad df = 9 \quad p < 0.05$				

## 2. 일반교도 출석률에 미치는 교무의 효과

- 1) 교무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원기 79년부터 원기 84년까지의 출석률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래서 평균 출석률이 감소하고 있는가 혹은 증가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아래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11명 이상 감소한 교당,  $\pm 10$ 명 정도 감소 혹은 증가한 교당(답보상태로 규정), 그리고 10명 이상 증가한 교당으로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88.7%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11명 이상 감소한 교당은 3%이었고, 11명 이상 증가한 교당은 8.3%이었다.
- 2) 교무가 바뀌고 안 바뀌고 여부에 따라서도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다.

< 표 6 > 교무 이동 여부에 따른 교화 쇠퇴 및 발전 (일반교도 범죄 출석률)

		원기 79-84년 사이에 교무 바뀜?		전체
		안 바뀜	바뀜	
교화발전여부	11명 이상 감소	2.4	7.7	3.0
	답보(±10명 정도)	89.6	80.8	88.7
	11명 이상 증가	7.9	11.5	8.3
합 계 (교당수)		100.0 (415)	100.0 ( 52)	100.0 (467)

3. 지역, 교구, 창립 연도, 그리고 교무 효과 가운데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각 변수의 도입에 따른 설명된 변량(explained variance)을 비교해 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추론한 그 영향력의 순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창립연도 > 교구 > 도·농의 지역

※ 교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다

< 표 7 > 다중 회귀 분석의 설명 변량 변화

	Eq. 1	Eq. 2	Eq. 3
변 수	창립연도	도시·농촌	교 구
R <sup>2</sup>	0.15	0.23	0.32
R <sup>2</sup> 변화	-	0.08	0.09
변 수	도시·농촌	창립연도	교 구
R <sup>2</sup>	0.05	0.23	0.32
R <sup>2</sup> 변화	-	0.18	0.09
변 수	교 구	도시·농촌	창립연도
R <sup>2</sup>	0.10	0.16	0.32
R <sup>2</sup> 변화	-	0.07	0.16

#### 4. 위의 결과들에 기초하여 교화 탄력성을 평가해 보면,

- 1) 면·리와 같은 농어촌 지역보다는 읍, 읍보다는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 2) 창립연도와 지역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적 교화활성 정도가 큰 교구와 적은 교구
  - ① 큰 교구: 중앙, 영광, 경인, 충북, 서울, 전북
  - ② 작은 교구: 부산, 대구·경북, 제주, 경남

### Ⅲ. 조사 결과의 분석: 교도 조사 자료 분석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 1) 교도들의 성별 분포는 지역과 교당의 역상에 관계없이 남녀 각각 1:2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 2) 연령별 분포는 지역별로는 대체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부산 지역 교당(부산교당과 대신교당)과 대전 지역 교당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서울과 전북지역은 고연령층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부산 지역은 특이하게도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창립 시기별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오래된 교당은 고연령층의 교도들이 많고, 창립한지 얼마 되지 않는 교당들은 저연령층이 많았다.
- 3) 학력별 분포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교당의 역사 범주별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창립 연도가 최근인 교당일수록 교도들의 학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학력 대비 교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표 8 > 지역 및 교구 역사별 응답 대상자의 특성

		전체	지역				교당의 역사(원기: 창립시기)		
			서울	부산	대전	전북	11-45년	51-65년	79-80년
성	남자	31.4	29.7	29.5	26.4	34.9	30.5	31.9	32.6
	여자	68.6	70.3	70.5	73.6	65.1	69.5	68.1	67.4
연령	-45세	25.5	21.9	30.2	31.9	26.2	18.8	29.3	33.9
	46-55세	23.6	25.7	11.1	17.6	25.6	18.3	24.9	32.3
	56-65세	24.0	23.8	19.0	23.1	25.3	24.5	23.6	23.4
	66세+	27.0	28.6	39.7	27.5	22.8	38.4	22.3	10.4
학력	초등	15.1	11.6	9.5	20.9	17.9	17.2	20.0	5.2
	중졸	13.2	10.1	23.8	13.2	14.2	13.7	17.8	6.7
	고졸	31.3	29.9	34.9	24.2	34.0	33.3	30.4	28.4
	대졸	30.8	37.1	28.6	29.7	25.3	28.0	22.6	45.9
	대학원	9.7	11.3	3.2	12.1	8.6	7.8	9.1	13.9
합계 (사례수)		100.0 (792)	100.0 (316)	100.0 (63)	100.0 (91)	100.0 (324)	100.0 (370)	100.0 (229)	100.0 (193)

## 2. 교통 수단 및 이동 거리

- 1) 서울 지역은 승용차나 버스, 그리고 전철 등으로 30분 내지 1시간씩 이동하면서 교당에 가야한다. 이에 반해, 전북 지역 교당 교도들은 도보로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교당에 가게 된다. 교화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교당이 교도들의 의식(意識) 공간 안으로 들어오려면 일상화(日常化)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빈번한 접촉이 필수적이라 할 때 서울, 부산, 대전 지역은 교당의 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너무 멀다는 판단이 든다. 장기적으로는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에 비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최근에 창립한 교당일수록 승용차로 교당에 오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고학력자들이 승용차로 교당에 왕래한다는 점을 교당 설립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표 9 > 지역 및 교구 역사별 교당 거래의 교통 수단 및 거리

		전체	지역				교당의 역사(원기: 창립시기)		
			서울	부산	대전	전북	11-45년	51-65년	79-80년
교통 수단	도보	23.9	6.2	23.8	7.9	45.3	12.9	47.1	17.4
	승용차	40.8	46.6	27.0	51.7	35.0	36.3	31.1	61.1
	버스	22.8	22.5	39.7	36.0	16.3	34.9	12.0	12.6
	택시	3.5	3.6	3.2	3.4	3.4	3.8	4.4	1.6
	전철	9.0	21.2	6.3	0.0	0.0	12.1	5.3	7.4
거리	-10분	35.8	18.6	28.6	31.9	55.2	22.3	50.0	44.8
	11-30분	40.6	39.0	34.9	50.5	40.4	43.5	36.5	39.7
	31-60분	19.0	32.4	30.2	16.5	4.3	26.9	11.7	12.4
	61-90분	4.6	10.1	6.3	1.1	0.0	7.3	1.7	3.1
합계 (사례수)		100.0 (796)	100.0 (318)	100.0 (63)	100.0 (91)	100.0 (324)	100.0 (372)	100.0 (230)	100.0 (194)

### 3. 현재 교당에 대한 평가

- 1) 현재 교당에 대해 30-50%는 특별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없다고 응답을 하였다.
- 2) 그러나, 아래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교도간의 분위기와 교무의 인격·설법이 교당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부하는 분위기도 교당에 대한 호의적 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 3) 역으로, 상호간 관심 부족이나, 교화 정체가 교도들을 초조하게 만들 수 있다. 서로에 대한 긴밀한 배려, 그리고 공부심 강화, 다양한 교화 노력이 교도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 표 10 > 현재 교당의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

좋은 점	%	좋지 않은 점	%
무응답	33.5	무응답	52.4
교도간의 분위기가 좋다(친절, 화합)	29.3	교당환경 열악(교통, 공간, 주차 등)	9.2
교통이 편리하다. 집에서 가깝다	3.6	교화 정체(젊은 사람 부족, 다양화 부족)	14.3
교무님의 인격, 설법이 좋다	14.6	훈련, 공부, 봉공 정신 부족	6.7
교당의 청결, 편안한 분위기	5.5	서로간의 관심 부족, 교무와의 저친밀도	12.9
공부하는 분위기	10.4	변다한 행사	0.4
기타	2.8	기타	4.1

- \* 최근에 생긴 교당일수록 “교무님의 인격, 설법 등에 의한 감명” 비율이 높다
- \* 서울에 있는 교도들은 현 교당의 좋은 점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다소 높게 강조한다
- \* 서울 지역은 “교화 정체”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 \* 그리고 “교화 정체”에 대한 불만은 원기 45년 이전에 창립된 교당에서 높게 나타났다
- \* 최근 창립한 교당은 “서로간의 관심 부족과 교무와의 낮은 친밀도”에 대해 불만이 비교적 높았다. “관심 부족과 교무와의 낮은 친밀도”에 대해 불만인 사람들은 연령이 낮은 층에서 높았다. 젊은 층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우호적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 \* 대전 지역은 “열악한 교당 환경에 대한 불만”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4. 교도들은 이사 비율이 매우 높고, 이사에 따라 근처 교당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현 교당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45.7%)을 제외하고 나면 이의 2/3에 해당하는 30.7%가 이사를 오게 되어서 현 교당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교도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교당을 창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서울 근교의 신도시에 교당 신축이 필수적인 이유가 이것이라 하겠다.

### 5. 가족의 종교 결정성(結晶性: family crystallization)

- 1) 아버지의 종교: 종교 없음 31.8%, 불교 30.2%, 원불교 24.2%  
 어머니의 종교: 종교 없음 13.0%, 불교 34.6%, 원불교 27.8%
- 2) 자녀 1의 종교: 종교 없음 13.2%, 불교 5.8%, 원불교 64.5%

자녀 2의 종교: 종교 없음 10.9%, 불교 1.6%, 원불교 59.0%

3) 본인을 교당으로 인도한 인연은

부모·형제가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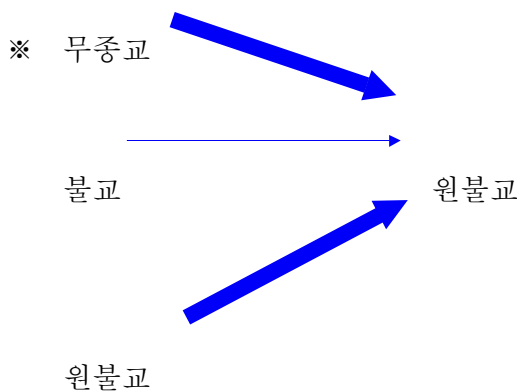
친척이 11.8%

친구가 19.0%

교무님이 10.2%

그리고, 스스로 찾아간 경우가 15.8%이었다.

※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가족 교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가족내 종교 결정성이 약화돼 나가고 있어, 원불교의 자원이 불교라 볼 수 있는데 불교 인구의 가족내 결정성이 40% 이내(기독교나 천주교는 90%에 육박)<sup>5)</sup>인 점을 감안하면 원불교의 교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 가족이 원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경우와 종교가 없는 경우의 교화 전략은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이 원불교도인 경우 공부심과 신앙심을 고취시켜 자기 만족을 제고시켜주는 것이 최대 역점이라고 한다면, 무종교인을 원불교로 인도하려면 대사회적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직접적·간접적 사회활동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 6. 현 교당에 대한 고집도(loyalty)

- 1) 응답자의 65.2%는 이사를 가더라도 현재 교당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23.6%는 이사간 주변의 교당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2) 이러한 교당 고집도(이사 가더라도 현 교당에 계속 나오는 것)는 서울과 부산이 75% 내외로 매우 높은 반면, 대전/전북 지역은 56% 내외로 비교적 낮았다.
- 3) 당연하겠지만, 오래된 교당 교도들은 교당 고집도가 높은 반면(71%), 최근에 설립한 교당은 그 고집도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만큼 교당에서 연륜을 쌓아갈수록 철수부담<sup>6)</sup>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본인의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 7. 원불교를 중단하는 주요 이유

### 1) 교당을 다니다 중단하는 이유들을 열거해 보면

교무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26.9%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25.9%
가족이 반대해서:	25.7%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25.5%
개인적 어려움 때문에:	19.0%
교당과 거리가 멀어져서:	8.2%
교도들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	4.8%
교리에 대한 신심이 떨어져서:	0.5%

2) 따라서, 주요 이유는 ① 교무에 대한 실망과 ② 개인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무에 대한 인격적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교도들은 실망이 크고, 이것이 교당 왕래를 중단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종교는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이유 때문에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일반적 믿음을 여기서도 깨고 있다. 서구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종교로부터 멀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우리의 자료도 이를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 8. 교무의 이상적 모습

### 1) 가장 좋게 느껴지는 교무의 모습을 체크하라고 하였을 때

설교를 잘 하는 교무님:	59.8%
원불교 교법을 잘 알려주는 교무님:	52.7%
인정이 있는 교무님:	27.5%
봉사하는 교무님:	19.3%
검소한 교무님:	14.1%
나를 잘 챙겨주는 교무님:	7.8%

2) 설교를 잘 하고, 교법을 잘 알려주는 교무님이 가장 좋게 느껴지는 교무님이라고 한다. 즉, 교무의 주임무에 충실하며, 그 능력을 제대로 갖춘 교무님이 존경스런 교무님이라는 얘기이다.

---

6) 그동안 쌓아온 인적 그물망(social network)을 포기해야 하는

3) 그러나, “존경하는 교무님을 한 분 떠올리고, 그분의 어떤 점이 존경스러운지”를 써달라고 하였을 때 그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설교 잘 하기 때문에:	7.4%
공부심(언행일치, 정성)	16.0%
나를 잘 챙겨주신다(인정)	14.7%
신앙심, 공부심의 길잡이	5.5%
교화에 적극적	4.3%

4) 실제로 존경하는 교무님들 가운데서 “설교를 잘 해서” 인정을 받고, “교법을 잘 일러 주어서” 존경을 받는 교무님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인격(공부심)과 정성(인정)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기타 태도 조사 결과

※ 태도 관련 설문 22개 문항을 Likert 유형 5점 척도에 의해 측정을 하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아래의 4개 차원이 발견되었다. 각각을 “원불교의 생활화 정도,” “교당 분위기에 대한 친숙도,” “사회적 그물망 자원으로써 교당의 역할,” 그리고 “교당의 가족화”란 이름을 붙여 보았다. 각각의 차원별 설문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것)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 원불교의 생활화 정도

① 나는 거의 매일 심고를 올린다:	52.8%
② 교당은 내 인생의 거의 전부와 같다:	49.2%

### 2) 교당의 분위기에 대한 친숙도

① 우리 교당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다:	69.5%
② 교당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	81.6%

### 3) 사회적 그물망 자원으로써 교당의 역할

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사람이 교당에 많다:	37.7%
② 교당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많다:	42.6%

### 4) 교당의 가족화

① 교당에 좀 편안하게 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59.8%
② 나의 가족은 대부분 원불교 신앙을 한다:	65.8%

## IV. 결 론

### 1. 교화의 발전은 교무 효과보다는

- 1) 창립 연도
- 2) 교구
- 3) 도·농의 지역 효과 순으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따라서, 교화는

- 1) 중앙교구, 전북교구, 영광교구, 경인교구, 서울교구, 충북 교구에서
- 2) 오래된 교당일수록 발전되는 경향이 있고,  
상기 교구 지역에서는 농촌이나 읍 지역보다는 도시에서 더욱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 3) 부산, 대구·경북, 제주, 경남 지역은 교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 3. 교화 전략

	교 구	전 략
I 지역	중앙, 전북, 영광, 서울, 경인, 충북 교구	읍 지역 이상, 가능하면 도시에 교당을 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안정적 틀 확보
II 지역	부산, 대구·경북, 제주, 경남, 강원, 대전·충남	상대적으로 교화 탄력성이 낮아 교화가 어려운 지역. 대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

### 4. 새로운 교당들은

- 1) 고학력 젊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경향이 높고
- 2) 교무의 설교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 3)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승용차로 교당을 내왕한다
- 4) 교당의 공부 분위기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 5) 교무·교도와의 인간관계가 교화의 촉매 역할을 한다
- 6) 가족의 결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 ① 한 편으로 가족 교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 ② 무종교인인 사람들(과거에는 불교인들이었지만)을 인도하기 위해 대사회적 활동 要

### 5. 현 교당에 대한 고집도가 높지만, 그것은 투자한 비용에 대한 철수비용의 상대적 부담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경우 지리적 이동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서(위의 지역 I의 경우에) 교화의 장을 열고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젊은 사람, 교당의 역사가 짧은 경우 교당 고집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사한 지역에 새로운 교당이 생겨나면 쉽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 6. 교당을 중단하는 주요 이유는

- 1) 교무에 대한 실망과
- 2) 교도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 따라서 ① 교무 자신의 인격(공부심과 따듯한 인정) 배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② 또한 교당이 교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7. 교무의 이상적인 모습은

- 1) 설교를 잘 하고, 교법을 잘 일러주는 교무님이다. 즉, 교무의 본분, 교역자로서의 중심된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다.
- 2) 그러나, 실제로 존경하는 교무를 적시하고 어떤 면에서 존경하는지를 질문하면  
① 공부심(언행일치, 정성)이 많고, ② 나를 잘 챙겨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 3) 이것은 교무들에게 설교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제로 설교를 통해 교도들에게 호소력을 가진 교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무들은 인격과 정성으로 교도들에게 다가서고 있고 그러한 것이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교무의 본질적 능력(설교, 교리전달능력) 배양에 심혈을 기울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초창 교당들은 젊은 고학력층이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8. 교도들에게

- 1) 원불교의 생활화 정도는 아직 약한 편이며
- 2) 교당의 친숙한 분위기는 교도들에게 매우 호감을 주고 있다.
- 3) 그러나, 사회적 그물망으로써 교도들이 서로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역할은 아직 모자라는 것 같다.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 관심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교당이 새로운 공동체 대안으로써 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실제로 그러한 역할이 다소 부족한 느낌이다. 즉, 사회적 그물망(social network)은 ① 정서적, ② 도구적, ③ 정보적, ④ 평가적 도움들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우리의 조사 경우 교도들을 통해 정서적 지원의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